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3년 1월 15일(주일) 제1426호

사진은 미얀마의 한 소녀가장과 동생(제공 신진호 성도(김포공동체)).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

1월 14일과 15일 '2차 선교헌금 작정' 선교헌금작정서, 온라인 작성, 전화 참여

2차 선교헌금을 작정한다. 1월 14일(토)과 15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 란 클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선교헌금 작정은 자동이체(CMS)나 헌금봉투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선교헌금 작정을 처음하는 성도들은 자동이체(CMS)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미 자동이체 방식으로 선교헌금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선교헌금 증액을 원하는 성도들은 2000선교본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들은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와 작정 금액,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를 잊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 헌금봉투 방식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후원 연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매년 선교헌금 작정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00선교본부에서 '2022년 온누리선교 보고'를 발표했다. 2022년 선교예산 집행 내역, 2023년 선교예산, 온누리교회 선교 기관별 주요사역 등을 보고했다.

2022년 선교예산은 선교사 후원 54.1%(68억 원), 선교사역비 23.3%(29억 3천만 원), 기관지원 8%(10억), 시설 건축 및 운영비 11.9%(14억 9천만 원), 행정 운영비 2.7%(3억 4천만 원)등에 사용했다. 주요사역은 '레바논 베카지역 온누리라이프센터 개원 및 난민 사역', '이란인 연합전도부흥집회', '몽골 다르항 Acts29 비전센터 개소',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등이었다. 더 자세한 2022년 온누리선교 보고는 하단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2023년은 선교현장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면서 "온누리교회 선교가 코로나19 기간에 얻은 교훈과 은혜를 바탕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61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월 30~2월 3일 '2023 목회사관학교'

1월 27일 'Acts29 비전 컨퍼런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2023 목회사관학교가 '공동체의 돌봄과 상담'을 주제로 오는 1월 30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마임비전빌리지(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443번지)에서 막 오른다. 올해 목회사관학교는 전임 교역자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파트교 역자 2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30명(전임 170명, 파트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의 쉼과 교제를 위한 '2023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1월 27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미국, 일본, 오세아니아, 아부다비, 베트남 등 온누리 해외비전교회 전임 목회자, 비전교회 협력위원 등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누리교회: 온라인(www.onnuri.org) 전화(02-3215-3265, 3264, 3618, 3253), 서빙고 재정팀, 양재목회지원실
CGNTV: 온라인(www.cgntv.net) 국세청 홈택스, 전화(02-796-2243)
NGO 더멋진세상: 온라인(www.abetterw orld.or.kr), 국세청 홈택스, 전화(02-2271-2248)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5일!

1월 20일까지 오전 5시 30분 모든 캠퍼스 본당

2022-20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이 5일 남았다. 지난해 12월 12일(월) 시작한 2022-20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1월 20일(금)까지 국내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이재훈, 박종길, 강부호, 이기원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9일 박종길 목사 '예수님을 만난 바울', 10일 이재훈 목사 '누구를 찾고 있느냐', 11일 강부호 목사 '기도와 회개', 12일 이재훈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3일 이기원 목사 '예수님의 선물'을 주제로 설교했다〈메시지 12-13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생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16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17일 '생명의 양식', 18일 '풍성한 생명', 19일 '부활 생명', 20일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독교 세계관_ 삶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가? '상대주의' 4면 절기_ '2023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5면 말씀과 기도_ 맛있는 말씀 해설 7면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길, 진리, 생명(2)

요한복음 14:1~6

이재훈 목사

올해 온누리교회의 영적 표어는 길, 진리, 생명입니다. 이 시대 세상을 주관하는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념에 대해 이 말씀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아셨기에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눈엣가시처럼 빼내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이 말씀이 참이기에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해 왔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위협에도 교회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과 이 시대 사역자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꼽으라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관련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Fathering'이라는 단체에 의하면 미국에는 2천만 명이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 '아버지 없는 전염병(Fatherless Epidemic)'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기 감옥에 간 사람의 85%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 85%,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 75%, 고등학교에서 중퇴하는 이들의 71%, 10대 임신하는 이들의 71%, 모든 노숙인과 가출 어린이의 90%, 청소년 자살의 63%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회에서 심각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Fatherless Home'입니다. 'Fatherless'란 단순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세계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무신론 사상가들의 대부분이 아버지와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질문하면 그들도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할 것입니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아버지의 문제, 그 아버지의 아버지 문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인류가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인류 전체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26번, 15장에서 11번, 16장에서 14번, 17장에서 52번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합하면 103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103번이나 사용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신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아들이기에 예수님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일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아버지로 부르며,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이 땅에서 주는 최고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서 행하심, 떠나심, 다시 오심을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행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길, 진리, 생명'이라는 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축복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삼중적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고,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신 일은 죄 가운데 처해있는 인류에게 필요한 세 가지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는 상태라면 아버지 집 밖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현재 상태, 실존이라고 말하는 이 상태는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 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백 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끝까지 찾아 와 기쁨을 나누었다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결국 찾아내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요구하고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상태에 이르러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얼마나 확신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 진리, 생명, 길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로 그 아들을 맞아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소중한데 그 양이 잃어버려져 있고,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소중한데 드라크마를 모두 잃어버렸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소중한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존재로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잃어버려진 상태이기에 인간에게 결핍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밖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져 있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열심히 산 거 같은데 허무하고, 스스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었어도 허무감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잃어버려진 것이 소중한 만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의 양에 대한 사랑, 잃어버려진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과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달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속적인 비유는 인류의 상태, 실존을 의미합니다. 초점은 세 번째 비유에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찾듯이 아버지는 집을 떠난 인류를 찾고,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찾을 때까지 열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은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 집 밖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한 이후 회개한 흔적이 있습니까? 거짓말로 변명하고, 숨겼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각과 이성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회개는 인간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가 가능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을 때 회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이제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

둘째, 인류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남으로 진리를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에덴동산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버림으로 거짓을 믿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버리고,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을 믿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일컫는 말이 '포스트 트루스(post truth)' 입니다. 탈진리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규정하고, 분석을 할 능력이 발달한 것뿐이지 태초 타락부터 그랬고,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트루스' 는 진리를 버린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이 나왔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거나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가훈을 믿든지, 과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믿든지, 어떤 책에서 나온 말을 믿든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철학을 믿든지,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거짓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각한 인간의 질병은 바로 타락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심이 남아 있고, 윤리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넣어 주신 진리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윤리입니다. 인간의 윤리는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존재하고, 바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윤리를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보면 당시 그 어떤 법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그림자를 율법에 담아서 보여주셨는데 세상 그 어떤 나라의 법전보다 탁월합니다. 십계명이 모든 윤리와 법전의 근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은 진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놀라운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처럼 번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기에 그분은 살아있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거하기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

셋째, 인류는 죄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 되십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덴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지만 두 번째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으면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계획하신 실과이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벌로 그들이 죽음에 처하도록 하셨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타락한 상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의 실과 12그루가 나오는데 그것이 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시는 시험이 필요 없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아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적 생명만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생명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인 '조에(zoe)' 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적 생명인 '비오스(bios)' 입니다. 자연을 의지해야만 하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제한적인 자연을 의지해야 하는 생물학적 생명만 남았습니다. 자연적 생명에는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보면 본능과 자연 질서에 순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만큼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주를 탐험하고, 바다를 탐험하고, 자연 질서에 의존하면서도 자연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적 생명에 국한한 인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신하고 체험하는 것은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전하는 삶이 없다면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선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 진리, 이 생명, 이 길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힘을 다하는 온누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삶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가? '상대주의'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교에서 개설한 세계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너의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모든 학생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개개인은 서로 다른 삶의 정황 속에 살고 있으며, 거주 국가와 지역, 가정환경이 달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학생 중에서 일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은 이 시대 교회와 기독교 가정의 문제를 드러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 인도, 중국 등 모든 고대 문명 사람들은 진(眞), 선(善), 미(美)가 무엇인지를 찾아왔으며, 이것이 고전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이런 진, 선, 미 기준 아래 정의(justice)가 무엇인지,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로마신화처럼 많은 신을 가정하는 다신론 종교나 모든 만물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는 힌두교, 불교, 도교 등의 범신론에는 절대적인 신이 없다. 다신교에는 그 신마다 독특한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범신교에서는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다. 그래서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민간신앙은 불교와 도교, 무속신앙이 기반이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전통문화를 통해서 상대주의를 체득해 왔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기준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 절대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첫걸음이며 핵심이다."**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는 시각은 무신론인 인본주의나 공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유래한다. 그들은 절대적인 신이 없다고 믿기에 그로부터 유래한 절대적인 기준도 당연히 없다고 주장한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에서 '반드시'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자를 가정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무신론자들은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리고, 자기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기준을 바꾸게 된다.

우리 자녀들은 공교육에서 무신론 인본주의의 국민교육을 받고 있다. 12년 교육과정 동안 시험까지 봐가면서 무신론의 이념들에 세뇌당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은 진보라는 미명 아래 마르크스 사상과 그 아류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점령당해 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라고 부르짖는 교수들이 대학 캠퍼스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절대 진리는 웃기는 소리일 뿐이고,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인본주의자 모리스 스토러는 그의 저서 〈인본주의자의 윤리〉에서 "선악의 기준이 개인의 이익인가, 다수의 이익인가? 선악은 마음의 표현인가, 머리의 표현인가? 도덕성의 기준은 의도인가, 결과인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지며 혼란스러워한다. 이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혼란이며, 가야 할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마음에 심어두신 양심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신다. 이러한 계시를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기에 '일반계시'라고 한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기에 이를 '특별계시'라고 한다. 특별계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일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은 찰스 쉘돈 목사가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하고 자신이 목회하는 도시를 배회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았던 냉대와 무관심의 충격적 경험을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읽히려고 썼다고 한다.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해 보지만, 그 답변이 이 시대 삶의 정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께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데이비드 플랫도 그의 책 〈래디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어려운 선택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다른 기준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 절대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첫걸음이며 핵심이다.

추천 도서

현대적 가정이 아이의 상실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
케이티 파우스트, 스테이시 매닝 저 | 하선희 역 | 도서출판 콜슨 | 19,000원

"모든 아이는 한 명의 어머니와 한 명의 아버지가 있다."

이 당연한 명제가 현대적 가정에서는 깨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가정의 형태를 말한다. 동성 부모, 정자은행 기증을 통해 태어난 비혼 출산, 대리모, 배아 입양, 낙태 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적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론을 주입시키며 정체성 혼란을 막으려고 한다.

"엄마, 아빠는 선택적인 존재일 뿐이다",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 생물학은 무관하다", "동성 결혼을 통해 양육된 아이들과 이성혼을 통해 양육된 아이들이 차이가 없다", "정자와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간절히 원해서 얻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행운아들이다", "대리모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방안이다."

책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의 저자 케이티 파우스트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히 "NO"를 외친다. 케이티는 글로벌 아동 인권 운동을 벌이는 단체 'Them Before Us'의 창립자다. 그들이 아동 인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현대적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필요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아이들이 상품이 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낙태당하고, 성별에 따라 선택되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리게 된다. 안정성을 박탈당하고, 고의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다. 아동 인권의 침해는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받게 만든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소개한다. 프랭크와 조셉은 동성 파트너다. 그들은 조셉의 여동생을 대리모로 쌍둥이를 낳았다. 이 남성 커플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헤어졌다. 프랭크는 쌍둥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일곱 살이 될 때까지 쌍둥이를 혼자 키웠다. 그런데 조셉(쌍둥이의 생물학적 외삼촌)이 쌍둥이 양육권을 놓고 프랭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조셉이 양육권 소송에서 이겼다. 프랭크와 쌍둥이의 생물학적 관계는 무효가 됐다. 현재 아이들은 유모들이 번갈아 가며 돌보고 있다.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더라면 성(性)에 개방적인 서구의 어느 나라 이야기 정도로 치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합법,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등의 이슈로 뜨거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케이티 파우스트의 조언을 새겨듣자.

"현대적 사회는 아이들이 친어머니나 친아버지를 언제나 잃어버리게 되는 가정을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 현대적 사회는 잘못되었다. 현대적 가정이 '아이의 상실'로 이어진다. 나는 한국이 미국의 사례에서 배워서 현대적 가정이라는 모래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라는 반석 위에 나라라는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3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합니다.

2) 추모(追慕)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追) 슬퍼하는(悼) 추도(追悼)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식사를 나눈 다음 검소한 선물을 교환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새310, 통410)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에베소서 4:21~6:4	가족 중에서
설교	**그리스도인의 가정**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새436, 통493)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들어가는 말

'설'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렙니다. 아마도 설이라는 단어가 새로움과 기대, 익숙하지 않음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관계에 '21세기형 가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안정감, 익숙함, 연대감' 등의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냈다면, '21세기형 가족'에서는 '외로움, 낯섦, 독립적'이라는 차가운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실천편에 해당하는 긴 본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체적인 실천강령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새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묵상해봅시다.

1.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를 거룩한 새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21세기가 깊어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한 이상 이제는 세속적인 유혹의 욕심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거나 썩어질 것들 때문에 가정이 무시당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믿음의 가족들끼리는 거룩한 새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을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언어와 감정생활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예수님의 가치가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거짓과 더러운 말, 희롱의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그리스도인의 입과 입술, 혀와 목구멍에 맴돌거나 드러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질스러운 욕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은 선한 말과 용서하기를 즐기는 삶입니다. 그래야 주변 이웃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려 주실 것임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분노로 인해 죄를 낳고 마귀가 틈타게 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을 향한 언어와 감정 표현이 전달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3.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령 충만하고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눠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 간에 피차 복종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가는 말

2023년 설을 맞으면서 더는 낯설지 않은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관계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익숙하지 않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OOO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시편 23:1~6	다같이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새370, 통45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가족 중에서
설교	**믿음 속에서 위로합시다**	설교자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뵈어도(새545, 통344)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믿음 속에서 위로합시다

들어가는 말

죽음이라는 것은 산 자들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살아 남아있는 자들에게 슬픔과 아쉬움을 남겨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헬라어 '코이모메논', 잠든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인은 '자는 자들'을 기억할 때 슬픔보다 소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경험하는 유익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요 5:29). 남아있는 자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 슬픔과 아픔과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더라도,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과 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절망을 모두 내려놓고 소망을 키워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 그리스도인은 '자는 자들'을 '예수 부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살아 남아있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는 자들과 이 순간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3. 다시 오실 예수 강림의 때 '자는 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별로 끝나는 게 죽음이라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 강림하실 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기다립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가는 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늘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살전 4:18).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인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인의 신앙과 삶과 사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신앙이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을 담대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2023 선교헌금작정 기획

“선교는 내 생애 최고의 선택”

한세일 선교사, 조하늘 선교사, 한정원 자매의 고백

1. 한세일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스리랑카 직업교육학교.

2. 조하늘 선교사와 서아시아 T국 성도들.

3. 한정원 자매와 현지인.

현실만큼 신앙을 막아서는 높은 장벽도 없다.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해도 직장과 결혼, 자녀, 경제생활과 은퇴, 거주할 집 등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을 생각하면 앞날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선교를 노래하는 청년들이 있다. 한세일 선교사(스리랑카, FA 1기), 조하늘 선교사(서아시아 T국, FA 8기), 한정원 자매(MK)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우상을 내려놓으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서 “선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이자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라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요즘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한치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직 열풍’이라는 신풍조까지 생겨나고 있다. 인력관리업체 ‘사람인’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62%가 ‘당장 이직 계획이 없어도 취업 전문사이트에 이력서를 항상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세상은 정말 치열하고 각박하다.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이 쉽사리 선교에 헌신하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런데 “선교는 청년 시기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다. 현실이라는 높은 장벽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선교는 은혜의 길, 행복의 길

한세일 형제는 28살에 FA(청년선교사)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와 비전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다. 한세일 형제는 대학청년부 선교컨퍼런스 ‘카운트다운’에서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당시 저는 중식당에서 바리스타와 소믈리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명품과 좋은 음식들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청년부 선교컨퍼런스 카운트다운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GO!’라고 외치셨는데 그 외침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장님이 FA를 소개하셨습니다.”

한세일 선교사는 FA 1기로 튀르키예(당시 터키)로 향했다. 한세일 선교사는 FA 1기 형제자매들과 1년 동안 튀르키예에 머물며 언어 및 말씀, 큐티와 노방전도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그때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선교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튀르키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와 재정,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깐 체험하기에도 선교사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세일 선교사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선교에 인생을 걸고 싶다는 도전을 받았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메르베’라는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차례 만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복음을 말해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1년이 아니라 평생 전도해도 그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 삶을 헌신하기로 도전했습니다.”

한세일 선교사는 FA 1기에서 함께 훈련받은 유은선 선교사와 가정을 꾸리고, 장기선교사로 헌신했다. 지금은 스리랑카에서 국제학교와 직업학교를 섬기고 있다. 한세일, 유은선 선교사 부부는 “선교는 좁은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 행복의 길”이라고 고백했다.

“사실 한국에서 누리던 혜택들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정착한다는 게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요즘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 사태인데 기름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쳤을 때는 종일 거리를 다니며 으깨진 감자와 양파, 닭 한 마리를 겨우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좁은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선교가 가장 행복한 길

조하늘 선교사(서아시아 T국)는 FA 8기다. TP(단기선교)를 거쳐 장기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때가 33살 한창 고민이 많았다.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이직하려고 잠시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선교를 경험하면 좋겠다 싶어서 FA에 신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는 삶이 정말 수지맞는 장사’라는 선임선교사님의 말씀에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조하늘 선교사는 선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했다. 세상은 안정된 직장과 좋은 연봉, 결혼과 성공 등을 추구하는데, 조하늘 선교사가 경험한 선교사의 삶은 그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직장을 내려놓고 단기선교를 하러 갔기에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걱정되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아쉬움과 두려움은 없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 저의 삶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란 말은 어떤 좋은 것 혹은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선교를 위해 삶의 좋은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하늘 선교사는 서아시아 T국에서 선임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조하늘 선교사는 선교를 고민하는 청년과 성도들에게 “선교가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권면했다.

“선교를 선택하십시오. 선교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교는 은혜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교라는 더 귀한 선물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지에서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또 그만큼 은혜를 받는다. 한정원 자매(21세, 동아시아A국에서 성장)는 고등학교 학생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현재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게 기대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려웠고, 아빠가 현지 아이들만 챙겨서 질투가 나고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의 사역을 보면서 한정원 자매의 마음에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자리 잡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성경이 진짜라면 선교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요? 젊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데 저는 그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더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헌금해주시는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싶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선교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눅 11: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누가복음 11:9~10).

이 말씀은 많은 성도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기도생활에 큰 혼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본다.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청원과 간구가 이루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의 내면동기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진다는 뜻일까? 교회에서 기도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의 기도 관련 본문들과 이 구절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본문은 제자들에게 '강청기도(persistent prayer)'를 강조하고 있다(눅 11:5~8, 18:1~8). 반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씨름하고 있다(눅 22:35~45).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11:2~4)과 성령 안에서 기도함의 중요성(11:11~13) 사이에 놓여져 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참된 기도란 주기도문의 내용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신 기도란 내 신념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다. 무조건 내 고집과 신념, 자신의 기도제목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고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일까? 그것은 잘못된 동기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배치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2:10).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응답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빌 하이벨스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네 가지 형태로 응답된다. 첫째,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즉각 'Yes'가 온다. 둘째,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No'가 온다(이때는 안 들어준 것이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Silence(침묵)'라는 기도응답이 올 수 있다. 내면의 그릇과 성품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응답이 지연(Delayed)되는 경우다.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비밀에 속해 있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려야 한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이다.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역전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공동체

1월 16일~29일
빌립보서 3:1~4:23;
사무엘상 1:1~4:11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기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흔드는 '다른 복음'을 경계한다. 바른 복음을 전하려 힘쓰면서 바른 신앙의 본이 된 바울의 비전과 삶을 묵상하자.

▶ 빌립보교회에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로 규정한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빌립보교회 안에는 성도 간에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한다. 성도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린 교회는 빌립보교회가 유일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기를 기원한다.

묵상포인트 2: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 이야기는 불임으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한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소망하던 아들을 주시며,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다. 한나의 불임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둔 것이다. 엘가나는 불임에도 한나를 사랑한다. 브닌나는 한나를 시기하고, 한나는 브닌나로 인해 상처받고 눈물짓는다. 가족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간 어느 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울면서 서원한다.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지만, 정황을 알고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원해 준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한나는 서원을 지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 한나는 불임과 출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역전시키신다. 그 어떤 밑바닥 인생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실 수 있다.

묵상포인트 3: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대조된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지만, 그분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 타락한 제사장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묵상하자.

▶ 엘리 대제사장 집안은 당시 가장 권세 있는 가문이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간음죄를 저지른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가볍게 질책만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가문에 대한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신다.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해 새로운 시대를 열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 공동체 안에서 다른 복음, 서로 다른 마음은 다툼의 시작이 된다. 진리의 복음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일에는 관용하고 양보하며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상황에 처했다면 겸손히 인내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자. ▶ 하나님은 그분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보자.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신앙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신앙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몇 년 전 5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2개월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예식장은 물론이고 신혼집도 마련해두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고 있었기에 파혼 소식을 알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저와 전 남자친구의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문도 돌았습니다. 파혼하고 정리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여유가 생기면서 저를 둘러싼 소문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해명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환이 생기고, 몇 달 만에 살이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잦아들고 제 상태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때 망가진 건강과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약 없이는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이전과 같은 평안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미움이 용서로 바뀌기를 기도해주십시오.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라떼는 말이야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다짐이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좋을까요? 멘토님의 따뜻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2022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프랑스와의 결승전 경기는 역대급으로 박진감 넘치는 승부였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한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특히 16강행을 결정지은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경기가 인상적이다. 부상 투혼 손흥민 선수가 몇십 미터 질주 이후 상대편 선수 다리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해준 볼을 황희찬 선수가 넣어 역전승한 장면은 아무리 봐도 감동이다. 이 장면은 2002 월드컵 당시 이영표 선수의 센터링을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한 다음 상대방 골키퍼 다리 사이로 집어넣는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대회를 마칠 때 관중석에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플래카드가 등장했었다. 이번에는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열세적인 상황을 이겨나가는 불굴의 정신을 우리에게 각인시켰다.

예수제자학교(JDS) 팀장 시절 면접했던 사람 중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는 신청자였다. 나는 '가정도 사역지'라는 생각에 6개월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물었다. 그분은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영적 가장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한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었다. 예수제자학교(JDS) 입학을 권면하면 아이들이 있어서 곤란하다며 지원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은 어린 자녀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디딤돌로 여기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단한 것이다.

많은 사상가가 본인이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한탄하며 교훈이라는 철학을 남겼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와 교훈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대로 사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철학가 혹은 창시자와 차별되는 이유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혼자 일하셨고 혼자 세상에 맞서 이기셨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시 34:2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의인 10명이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수많은 미디안 앞에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추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나 하나쯤이야'라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생각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자.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연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바로 당신을 부르신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다. 교회에 더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로마 시대 핍박 속에 꽃 피어나 국교로 공인을 받았고, 문화혁명으로 성경과 교회가 사라졌던 중국에 다시 1억 명의 성도가 생긴 일을 기억하자. 이제 하나님과 한국 교회를 위해 내가 참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이다.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소망을 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 속에 새해를 맞이한다. 지난해 하나님이 세심하게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새해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두근거리는 기대와 설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오범규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의 성적 친밀감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을 때 마음을 담아 선물을 건넨다. 선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건네기도 한다.

적절한 선물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받는 것이기에 선물 상자 안에 담긴 물건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마음이 담긴 선물은 상당한 노력과 고민, 선택의 갈등, 무엇보다 정성을 포함한다. 소요하는 시간이 상당한 경우도 많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무엇이 가장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물일지 고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정말 소중하게 선물을 구하고, 때때로 마음이 담긴 글을 밤새워 한 글자 한 글자 편지지에 눌러 담는다. 그리고 선물을 박스에 넣고 포장지로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포장한다. 선물을 전달하기 전날 밤에는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에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선물을 건넨다. 그 선물은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그 사람의 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선물 이상의 의미를 볼 수 있을 때 그 선물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특별한 의미로 두 사람을 친밀함과 사랑으로 연결시킨다.

부부가 성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데도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얻는 것과 같은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순하게 포장지 안에 있는 물건이 그 선물이 주는 의미의 전부라 할 수 없듯이 성적인 친밀감을 단순한 관계적 접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로 보기 어렵다. 성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접촉 외에도 상당히 많은 친밀한 접촉과 교류들이 쌓여 있어야 한다. 일상에서 부부가 얼마나 많이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적인 교류를 가졌는지가 부부의 성적인 친밀감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때로 성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부부가 갈등이 있고, 서로 쌓인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긴장감 높은 부부관계를 풀고자 성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무작정 제안하는 배우자가 있다. 부부 갈등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방어적이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얼렁뚱땅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꾀하려고 한다면 이는 성적인 친밀감의 넓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친밀함과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성적 친밀감의 선(先)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날 저녁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날 아침 배우자를 향한 태도가 따뜻해야 한다. 그날 아침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적절한 스킨십, 출근하면서 건네는 격려의 말, 집안의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행동 등이 필요하다. 따뜻하고, 적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이 그날의 성적인 친밀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신체적으로도 함께하고자 하는 준비가 된다. 마음이 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다. 흐르는 마음의 방향을 갑자기 전환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성적인 친밀감을 갖기 위한 부부의 마음도 갑자기 닫힘에서 열림으로 바뀌기 어렵다. 준비하는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 성적인 친밀감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 성적인 친밀감과 관계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가 가정생활을 함께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언어들이 서로의 성적인 친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친절한 말 한 마디는 그 이상의 의미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집안에서 해야 하는 작은 집안일 처리는 단순한 집안일 이상의 섬김과 감사로 서로에게 전달된다. 반대로 함부로 내뱉은 무례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말 이상의 영향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고통과 실망으로 확대되어 전달된다.

부부의 성적인 친밀감은 부부가 서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충분히 쌓여야 누릴 수 있는 선물과 같다. 결혼생활에서 인정과 존중의 표현을 충분히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배우자가 있다. 집안에서 헌신적으로 행하는 봉사나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고 이해하는 배우자도 있다. 따뜻한 스킨십이나 적절한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고 이해하는 배우자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배우자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부부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다양한 말과 행동의 표현이 충분히 쌓일 때 부부는 성적으로도 충분한 친밀감을 얻을 수 있다.

성적인 친밀감은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랑이 담긴 선물은 단순히 가격이 매겨진 물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부부의 성적 친밀감을 단순한 육체적 하나 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부부의 성적인 친밀감을 육체적 접촉 이상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 봉사와 격려의 말들이 포함된 한 차원 높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부부는 더 깊은 성적 친밀감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벧후 1:5~7).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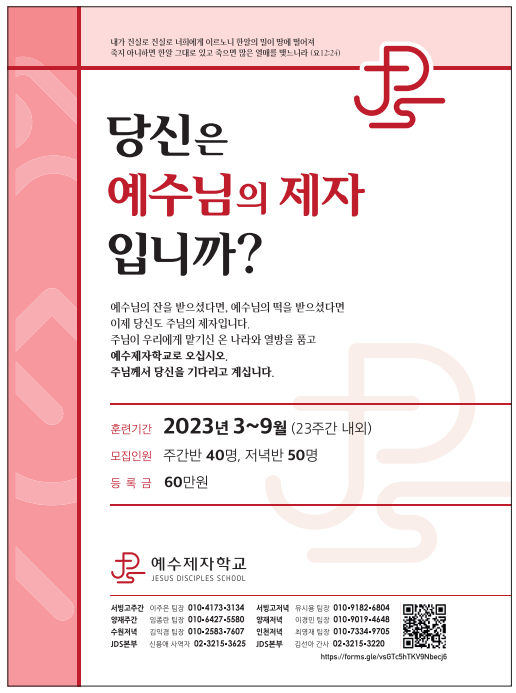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19일까지 신청, 총 6개 반 개강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예수제자학교(JDS)에서는 총 6개 반(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수원 저녁반, 인천 저녁반)을 개강한다. 서빙고와 양재 주간반 2월 28일(화), 저녁반 2월 25일(토), 수원과 인천 저녁반 3월 4일(토) 과정을 시작한다. 주간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 저녁반은 목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수업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입학신청서(교역자 확인 필수), 추천서(교역자, 교사, 직장상사, 은사, 지인 등 추천자 직접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사진 2매와 함께 2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간반 40명(여성만), 저녁반(남녀 모두) 50명씩 모집한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문의: 서빙고 주간 010-4173-3134
서빙고 저녁 010-9182-6804
양재 주간 010-6427-5580
양재 저녁 010-9019-4648
수원 저녁 010-2583-7607



인천 저녁 010-7334-9705
본부 02-3215-3625, 322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장로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온누리장로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찬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장로(시무, 사역, 협동, 명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월 4일(토)까지 장로합창단 총무 박일면 장로(가정사역공동체)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3708-5781

'온누리 예배찬양학교' 훈련생 모집

2월 10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시 양재 믿음홀

온누리 예배찬양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2월 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온누리 예배찬양학교는 참된 예배자이자 찬양인도자를 세우는 과정이다. 예배와 찬양의 성경적 의미를 비롯해서 찬양 발성, 찬양 인도 등 예배 인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문의: 02-570-7277

두란노어머니학교 1월 P.P 기도회

1월 16일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201호

두란노어머니학교 1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1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1호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문의: 02-2182-9110

온누리신문 카카오채널 개설

온누리신문 카카오채널을 개설했다. 카카오톡에 '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을 검색하면 온누리신문 카카오채널을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신문 카카오채널 채팅방 '채널 메뉴'에서 '간편 안내' 항목을 누르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매주 신문을 구독할 수 있고, 신문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공동체, 사역, 인물 등 온누리신문에 소개하고 싶은 기사제보와 '말씀과 지면'에 게재할 중보기도 및 말씀해설 등도 요청할 수 있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기독상담학과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기독상담학과에서 '나와 다른 성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미나를 개최한다.

2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공인정신분석가(NCPsyA) 장정은 소장(JE정신분석연구소)이 신경증, 분열성, 편집성, 우울, 자기애, 강박, 수용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나와 타인의 성격 역동을 이해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26만 원. 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 또는 온누리신문 카카오채널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내용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따르는 청년들!

대학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Kingdom Pioneer'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학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Kingdom Pioneer'가 '길, 진리, 생명'을 주제로 영산수련원에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대학부), 1월 6일부터 8일까지(청년부) 이어졌다.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부르심', 최성민 목사(대학청년사역부본부장)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서진 목사(허브대학부) '나무가 숲을 이루듯', 최종현 목사(하늘대학부) '기쁨의 헌신'을 주제로 강의했다. 대학부 리더십 40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달란트 인생',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 '영점 조준',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MBTI와 리더십', 최성민 목사(대학청년사역본부장) '성령 충만할지어다!', 정한효 목사(W청년부)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질 때', 이승민 목사(여호수아청년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를 주제로 설교했다. 청년부 리더십 700여 명이 참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청년선교사 'FA 20기' 모집

1월 15일까지 이메일 접수

청년선교사 'FA 20기'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1월 15일(일) 서류접수를 마감한다.

FA는 'Frontier Agency movement'의 약자로 온누리교회에 청년선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청년부의 단기선교 사역이다. FA 20기로 선발되면 레바논과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2월 6일부터 4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하고, 3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현지 사역,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디브리핑(Debriefing)을 한다.

FA 20기 지원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대학청년부 멤버십 6개월 이상, 35세 이하 미혼(1988년생 이하) 형제자매다. 신청서류는 허입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등이다. 건강검진은 '하나로건강검진센터'에 '온누리선교사 지원'으로 예약하면 된다(비용 개인 부담). 허입신청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모든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이메일(fa@tim.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70-4464-8105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3월 11일부터 매주 토 오전 10시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0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도농행사' 개최

1월 1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사회선교부)에서 1월 15일(주일) '도농행사'를 개최한다. 도농행사는 농어촌교회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성도들에게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는 사역이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미자립 농어촌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

1월 15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열리는 도농행사에서는 떡국떡, 가래떡, 서리태, 팥, 소금 등을 판매한다.

지난달 도농행사 수익금은 전액(2,382,000원) 후광교회(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 소재) 천장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3436

▶ 11월 비전헌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새희망나루교회 새 예배당 마련 지원

"새희망나루교회, 다시 태어났습니다!"

달빛이 햇빛이 되는(사 30:26) 영원한 빛으로 새해를 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희망나루교회는 2023년 1월 1일, 새 예배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리는 큰 감격을 누렸습니다. 눈부신 새 조명 아래, 강대상에 새겨진 십자가가 은은하게 빛나는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축하영상으로 보내주신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정성을 다한 축복의 말씀들이 저희에게 큰 격려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진심 어린 심정의 헌금 덕분에 저희가 아름다운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푸르른 새싹처럼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린 두 렙돈 일지도 모르는 귀한 헌금들이 모여 새희망나루교회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넘도록 담겨있던 공간에서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 힘겹게 버티고 있던 작은 소망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높은 계단을 믿음으로 오르내리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낸 교회가 다시 위기 가운데 놓인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고비를 지나며 북녘 땅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아픔과 상처로 얼룩졌던 탈북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잃어버릴까봐 애를 태웠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눈물로 울부짖으며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작은 저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으로 모든 것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 넘도록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속을 끓이는 임대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은 90평 되는 넓은 공간에, 큰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승강기는 물론이고, 주차공간도 있고, 주변에 번잡한 유흥시설 하나 없는 깨끗하고 탁 트인 곳이었습니다. 본래 저희의 형편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3년 동안 애태운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대폭 낮추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소개해주신 중개인분은 모태신앙이지만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계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현재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잔금과 인테리어, 아이들의 교육관과 낡고 오래된 부품들 하나까지도 예쁘고도 곱고, 튼튼하고도 빛나는 새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날이 오면 벚꽃이 날리는 교회 앞 호수공원에 성도들과 함께 소풍을 갈까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는 그저 덩그러니 서서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펼쳐 보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구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모여 예배하자며 마음을 다졌던 저희를 넘치도록 축복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희망나루교회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에 감격의 눈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예배당 건물 위에 세워져있는 어두움을 환하게 빛내는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새 예배당 이전을 향한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뿐 아니라 소중한 한 영혼을 구하시고자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새희망나루교회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다시금 이어집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줄기차게 새 희망을 전하는 나루터가 되고자 합니다. 새희망나루교회가 새로운 지역에서 귀한 탈북민은 물론이고 그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실제적인 사람의 통일,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음의 통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를 소중히 간직하고, 힘차게 새 생명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천국을 얻기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마요한 목사(새희망나루교회)

▌네팔 ECC 신학교에서 보낸 편지

졸업생들을 지원해주십시오

/ 벤자민 목사(네팔 ECC 신학교)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후원자님들께 네팔 ECC(Evangelical Christian College) 신학교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하시는 일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4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ECC 신학교와 교회 성도들이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도전에 직면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팔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ECC 신학교를 정식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여성들과 크리스천들을 섬기는 단체 'the Life Enrichment Center of Nepal'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여성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8명의 여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해주십시오.

가을학기에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150여 명의 지역 목회자들과 교수들이 참석해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하나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ECC 신학교 학생 9명이 3년 과정을 마치고 첫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명은 ECC 신학교에서 함께 일하고, 6명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중에 교회 개척을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곧 교회 개척을 위해 파송 받을 준비를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교회를 개척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교회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졸업생들을 지원해주십시오.

올해 신입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네팔의 부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네팔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문의: 임현태 장로(010-5261-7286)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내 필수품 〈최고의 행복〉

/ 정은배 성도(안산M센터)

어느 날 온누리전도학교 포스터가 내 눈에 들어왔다. '전도대장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 것 같아 놀라웠다. 온누리전도학교 초반에 〈최고의 행복〉이라는 전도지 전문을 암송하고, 조별모임에서 시연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됐는지 모른다. 책 〈날마다 111 전도〉 독후감 과제를 하면서 병원에서 매일 전도를 실천하는 저자 장경문 장로님의 전도 열정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 모든 대화와 상황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하루에(1), 한 명(1) 이상에게, 유일하신(1) 예수님을 전하자!'고 외치는 '111 전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얻은 유익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도 반대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배울 수 있었다. 온누리전도학교 참석 얼마 전에 불교신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말문이 막혀서 진땀을 흘렸던 적이 있다. 불교신자에게 대처하는 전도법 수업을 들으면서 "아, 진작 이 훈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둘째,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을 받는 중에 안산M센터 근처 공원에서 전도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한 시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설명을 잘 들어주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접 부분에서 완강하게 거부하셨다. 힘이 빠지고 실망감이 들었다. 그 순간 조별모임에서 나눴던 조장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나가야 합니다."

조장님 덕분에 툴툴 털고 일어나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온누리전도학교를 수료하면서 기쁨과 거룩한 부담이 나를 붙잡는 것 같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요즘은 산책하거나 장 보러갈 때 꼭 챙기는 필수품이 있다. 바로 전도지 〈최고의 행복〉이다.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을 받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선교칼럼

믿음의 일꾼 세우기

김종호, 이교자 선교사
(도미니카공화국)

막고리스교회와 산토도밍고교회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막고리스교회가 현지인 교회(베레아교회, 니디오 목사)와 연합해서 '온누리베레아교회'로 거듭났습니다. 니디오 목사님은 〈생명의 삶〉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큐티세미나를 통해서 베레아교회에 큐티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초 니디오 목사님 부부와 핵심 리더 네 가정이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대일제자양육이 온누리베레아교회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2명의 리더와 성도들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마쳤거나 진행 중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훈련을 깊이 고민하던 니디오 목사님과 리더들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깊은 도전과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대일제자양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을 중심으로 온누리베레아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현지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산토도밍고교회는 김종호 선교사가 1990년 4월부터 산토도밍고 국립대학(U.A.S.D.)을 중심으로 전도하며 현지인 대학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산토도밍고교회를 거쳐 갔는데 남은 자가 없어서 많이 절망하고, 앞으로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05년 여름부터 김종호 선교사가 신학(M.Div.)을 공부하면서 여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기숙사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토도밍고교회는 2006년부터 기숙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학생이 기숙사를 거쳐 갔고, 하나님께서 몇 명의 신실한 제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삭 형제는 목회자 자녀로 2007년 대학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입소해 영적 훈련을 받으며 꾸준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학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믿음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산토도밍고교회 찬양리더로 섬기고, 매주 주일 오전에는 노숙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헤네시스 자매는 2008년 기숙사에 입소해 영적 훈련을 받으며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놀란 형제와 함께 토요예배(청년사역)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클라디아 자매는 기숙사 출신은 아니지만,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직장생활을 감당하면서도 큐티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카롤리나 자매는 2003년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처음엔 예배당 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교회 재정관리를 감당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권사칼럼

속도보다 방향!

정정은 권사
(양천공동체)

2023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10일 넘게 지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하면서 지난해와 새해의 구별 없이 은혜의 도가니를 누리고 있다.

나에게 2022년은 여러모로 뜻깊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다. 사랑하는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나는 10년 만에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병을 계기로 골방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감사제목이다.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기도에 갈급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하루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 처음 기도를 드릴 때 한 시간은 참 긴 시간이었다. 그 한 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졸기도 했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간구를 올렸고 응답 받기도 했지만,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했던 몇 가지 기도제목이 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였다.

나는 결핍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탓에 늘 사랑에 부족함을 느꼈다. 그 모습이 너무 싫었고,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다.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다. 또 지혜가 부족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몇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더라"(창 46:2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출 12:37).

출애굽기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 고센 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70명을 몰아넣으시고, 60만 명의 대부대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고센 땅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골방으로 나를 몰아넣으시고, 골방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 70명이 60만 군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털어내고, 정결한 인격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한 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시간 기도가 가능해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말씀이 가능하게 되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시(無時, 일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로 기도하게 된다는 의미다.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살전 5:18), 범사에 감사했더니 항상 기뻐하게 되었다(살전 5:16).

故 하용조 목사님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하루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후로도 10년이 지나서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내 자식 만들기를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이어가면서 다시 도전하는 기도가 있다. 나의 고센 땅이었던 골방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간구한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 만드는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하신다.

신앙에세이

인생의 겨울에

김승겸 목사
(서빙고 차세대)

겨울이다. 겨울은 다른 계절과 달리 단조로운 색깔을 지니고 있다. 차갑고, 몸이 웅크려지고, 얼어붙는 계절이다. 나는 겨울이 올 때마다 늘 생각나는 문장이 있다. 김훈의 〈자전거 여행〉에 나오는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다"는 문장이다. 한겨울 창밖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면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언젠가 화사한 꽃들이 가득 필 거라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차갑고, 무채색인 겨울에는 따뜻하고 화려한 봄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우리 삶은 계절과 닮아있다. 따뜻하고 밝은 봄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도 있지만, 차갑고 어두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 인생이 혹독한 추위 속에 있을 때 따뜻하고 행복한 봄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다. 지금 처한 고통이 너무 크기에 '나에게 다시 좋은 때가 돌아올까?' 낙심한다. 하지만 계절마다 저마다의 유익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겨울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신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질투하고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비참하게 도망치는 삶을 살던 시기가 있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혹독한 겨울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생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다. 다윗의 인생 겨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시편)가 오늘날에도 삶의 추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귀한 시가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부터 몸을 일으켜 세울 힘조차 없어서 대부분 누워계셨다.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하신 게 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시편 3편씩 읽어드리는 것이었다. 다윗이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들이 어머니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 소망을 주었다. 이로 인해 내 어머니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그 경험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겨울을 함께 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보내주신다. 다윗이 볼품없고 초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다. 그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을 선물하신다.

내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처음 시작한 사역이 여러모로 쉽지 않았다. 교통편도 좋지 않은 데다가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택시를 탈 때가 많았다. 사역의 갈피를 못잡고 외로울 때도 있었다. 그때 어린 시절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한 동생이 동료 전도사로 오게 되었다.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본 것처럼 반가웠다. 그 전도사님 덕분에 차를 얻어타고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매년 겨울이 찾아온다. 고통의 시간도 매년 찾아오는 겨울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얼어붙은 겨울에도 나무는 자란다.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다른 계절에 자란 부분보다 단단하다. 삶의 겨울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함께 겨울을 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다윗이 누린 그 은혜들을 누리는 단단한 겨울이 되기를 소망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

◆ 1월 9일 월요일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행전 22:6~10

박종길 목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심문하고,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이야기는 두서없고, 증상을 파악할 수 없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군중들로부터 떨어뜨리고자 병영 안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헬라어로 로마 천부장에게 군중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말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6~8절). 바울은 군중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1~5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과 같이 환상적이지 않아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난 군중 앞에서든, 힘 있는 권력가 앞에서든, 감옥의 간수들에게서든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10절). 바울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9절)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10a절).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b절). 그 사명의 장소가 다메섹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다메섹의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그대로인데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장소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명을 듣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가 변화됐을 때 그곳은 예전의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사명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월 10일 화요일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한복음 20:11~18

이재훈 목사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물리적인 거리는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이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숨어서 예수님의 처형 광경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그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군병들을 동원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돌문이 열린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자 헌신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원하고 발걸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돌아간 이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일찍 돌아갈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하나님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장소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패배의 장소인 것처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가 되었고, 다시 아버지의 때에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더 깊은 사랑으로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똑같은 말이라도 그 깊이가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체험합니다. 구원의 감격,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1일 수요일

기도와 회개

이사야 59:1~2

강부호 목사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준 계명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시를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발전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더 길게 기도하거나 강하게 기도하기 등의 방법을 시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죄를 처리하면 됩니다. 나의 죄를 처리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면 기도 시간을 바꾸거나 찬양 분위기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회개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조차 잘 모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 죄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까지 알게 됩니다. 하나씩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기도의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의 방향을 돌이켰기에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했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마음이 기웁니다.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주는 상담사를 찾을 때까지 상담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가정을 어떻게 섬길지,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심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 1월 12일 목요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5-19

이재훈 목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네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호수로 갑니다.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패에 대한 기억을 억누르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 이후 제자로서 믿음의 실패,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기억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 가지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계속 그물을 내리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빈 그물을 보면서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도 빈 그물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물에 빠져 젖은 옷을 입고 뭍으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두고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이 상황 전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숯불이 언제 또 나옵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가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현장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인의 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실패의 기억을 치유해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번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이 사람들보다' 라는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책망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과거의 실패는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보다' 라는 전제를 붙이신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사실인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 자체에 대해 근심해야 합니다. 회귀하게 하는 근심이고, 거룩하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기억을 믿음에 대한 근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 양을 먹이라"며 다시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기억을 묻어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실패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나의 빈 그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나의 배신의 숯불 앞에 다시 서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3일 금요일

예수님의 선물

요한복음 20:19~23

이기원 목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이나 일이 매일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19절). '평강' 이라는 단어는 '하나되다, 조화롭다, 건강하다, 충만하다' 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가장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가장 적절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요 14:27).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셨더니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20절).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삶을 공유할 때 진정한 평강을 경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요 15:4).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생명 속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21절). 첫 번째 평강(19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평강입니다. 두 번째 평강(21절)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고난 과정에서 필요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22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23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평강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걸어 잠그고 있던 문을 박차고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억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과 묶임, 결박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평강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 사망을 이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쉘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료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한국어 읽기 교육용 도서 기증 요청
용도: 이주민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한국어 읽기 교육용
모집: 1. 훈민정음 아야어여, 2. 냠냠 한글 가나다, 3. 개구쟁이 ㄱㄴㄷ, 4. 가나다는 맛있다, 5. 생일 축하해요 ㄱㄴㄷ, 6. 숨바꼭질 ㄱㄴㄷ, 7. 글자없는 그림책 하나, 8. 나쁜 말이 불쑥, 9. 구워 주세요
문의: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031-8077-9110)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인원: 정규직 1명
업무: 인사(허입), 훈련행정
장소: 양지 Acts29비전빌리지 3층
근무: 화~토
문의: 070-4464-8102

NGO더멋진세상 직원 모집
모집: 본부 해외사업부서(2명), 해외사업실장(1명), 말라위 파견 직원(1명) 모집
접수: 1월 18일(수)까지
문의: 정승일 대리(070-4402-5015)
*자세한 사항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 공지사항 참고

한터공동체 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일시: 매 주일 오전 9시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분야: 피아노 반주자 1명
문의: 오은철 간사(010-7107-527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큐티지 편집 및 기획, 집필, 교정교열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부 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샤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 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 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 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윤길중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범석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섭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도육환 렴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재욱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정회성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하성희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최재윤 카와무라 요시키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박씨마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싱루아마놉 사가르 에릭마이클스톨즈
윌리엄 이진이 이진희 윤치연
전 진 제인량 차제이미 최정현
허효경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권대식
권예람 김가희 김디모데 김동규
김반석A 김반석B 김사라 김영신
김의연 김예찬 김종균 김주영
김정무 김정호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은혁 박예슬
박유진 방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한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아나 아얄라
안류택 양현모 오국헌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종연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아론뚜르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준수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상원 정연영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성희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승남 황연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옥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일 김정민
김정훈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윤영각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헌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탁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인숙 김성연 김성진
김정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텐치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
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코다이라 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겸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일대일 양육자반 주일 오전 이영근 장로반
일시: 1월 29일~5월 14일 매주 일 8:00~10: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Acts29
문의: 010-4731-6514

일대일 양육자반 목요 오전 조동욱 목사반
일시: 1월 19일~5월 4일 매주 목 11:00~12:3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주차팀 대기실
문의: 02-570-7349

일대일 양육자반 수요 저녁 조동욱 목사반
일시: 1월 18일~5월 10일 매주 수 20:00~21:30
장소: 온라인
문의: 02-570-7349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권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장은정 팀장(070-4340-2510)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1/5(목) 서빙고 김준희 성도 부친상 고 김천길
1/5(목) 한강 임은미 권사 부친상, 안상헌 장로 빙부상, 마포 박윤자 집사 시부상 고 임철재
1/6(금) 일산 김영은 성도 모친상 고 백영옥
1/6(금) 분당A 김승희 집사 모친상 고 백영옥
1/7(토) 양재B 이경숙 권사 부친상 고 이명우
1/9(월) 강남A 이귀용 성도 시모상 고 정길순
1/9(월) 양천 박효재 성도 모친상 고 정복남
1/9(월) 동작 성해두 집사 부친상, 김태리 권사 시부상 고 성우근
1/9(월) 성북 복인수 성도 부친상, 박윤영 성도 시부상 고 복원술
1/9(월) 마포 고준원 성도 부친상 고 고광석
1/9(월) 누리사랑 조영우 성도 모친상 고 박은이
1/10(화) 성동광진 김영주 권사 모친상 고 김말순
1/11(수) 마포 현혜련 권사 시부상 고 현근주
1/11(수) 강서 고 김용순 권사
1/11(수) 김포 김수연 집사 부친상, 한재진 집사 빙부상 고 김영재
1/11(수) 강서 오혜령 성도 부친상, 김도현 성도 빙부상 고 오금진

2023년 1월 14-15일
선교헌금작정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합니다.

선교헌금 작정 방법

1. 현장 작정 (2023년 1월 7-8일, 14-15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정서 작성

2. 온라인 작정 (상시 작정 가능) :
   선교헌금작정 QR코드

온라인 작정

3. 전화 작정 (상시 작정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정 가능합니다.

선교헌금 작정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② 처음 작정하시는 분은 <신규 작정란> 작성
   ③ 이미 작정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정란>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헌금봉투 방식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작성
   ②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